자연의 소비자, 자연의 생산자

(여호수아 4:1~24)

1.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2.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4.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5.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6.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7.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8.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연의 소비자, 자연의 생산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자연의 소비자, 자연의 생산자’
자연을 하나의 제품처럼 비유하는 것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잘못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자연이 없으면 인간의 삶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연의 소비자라고 한다면,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자연의 생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쑹쥐”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다람쥐나 들쥐의 일종이 아니라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쑹’은 삼성의 영어 단어 중에서 Sung을 쑹으로 부르고 LG의 G를 쥐로 삼성과 LG전자의 제품을 아울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데, 한국 제품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훌륭한 제품의 TV를 북한 주민이 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면 당국에서 기술자가 나와서 TV의 채널을 재조정해서 봉인을 합니다. 이 봉인을 뜯은 것이 발견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TV는 여러 개의 채널을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의 TV방송도 희미하게나마 수신이 가능한데, 그 채널을 다 틀어막고 오직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하나만 수신이 될 수 있도록 주파수와 채널을 고정시킨 후에 고치지 못하도록 봉인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아예 소비자의 손에 들어오기 전에 봉인을 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 하나만 수신할 수 있도록 채널이 재조정된 상태로 봉인이 되어서 소비자에게 넘어오고, 남한 방송을 보다가 들키면 공개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데도 이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몰래 봉인을 해제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인된 종이를 살살 뜯어서 내부를 바꾸고 다시 붙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서 TV를 두 개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TV를 생산한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생산자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외장을 뜯어내고 속에서 채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는 아닌데 생산자의 위치에서 TV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자입니다. 소비자는 봉인된 TV를 얻게 되면 봉인된 상태로 보고, 기술자가 해제를 해주면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비자입니다.

자연은 인간생존의 터전인데 이 자연의 생산자와 자연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연의 생산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자연의 소비자입니다. 이 자연은 생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연에 넣어주신 법칙이 있고, 자연 속에 속한 삼라만상의 속성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별도 진화하고 태양계의 움직임이 있고 중력의 법칙이 있고 가속도의 법칙도 있습니다. 나무면 나무, 물이면 물, 불이면 불, 흙이면 흙의 속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TV처럼 생산자의 위치에 선 사람들이 규정한 성격대로 소비자가 받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과 속성을 집어넣어서 허락해 주신대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선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속성과 법칙을 넣어준 채로 자연을 받아서, 그 자연에 익숙해지고 자연에 각인된 대로 살아가고 자연에 매여서 자연 안에서 살아갑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자든지 파괴하는 자든지 상관없이 자연의 속성을 이해하고 속성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물이 있으면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보다 비중이 더 큰 것들은 가라앉는다는 속성을 알고 있으니 함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드는 것이고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베르누이의 정리로 기류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자연의 속성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은 요상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요17:21절에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시는데 생산자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초청받은 자들이 선민입니다. 그리고 요1:1~3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하십니다.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 오셔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선민인데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으므로 만물을 만드신 생산자이신 예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므로 죽었다 깨어나도 물이나 바다나 나무나 산을 만들 수 없고, 내 손가락에 병이 생겨도 낫게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생산자는 아니지만 쑹쥐TV의 봉인을 해제하는 생산자의 위치에 서서, TV채널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사람처럼 생산자 위치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 선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민의 참 독특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생산자의 위치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생산자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자연의 생산자의 위치로 우리 마음이 옮겨가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연의 속성과 자연의 법칙에 매여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하나 됨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자연의 생산자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어서 그 분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생산자의 위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장자크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습니다. '계약의 결과로 생긴 국가가 오류를 범할 때에는 국가를 전복하고 혁명하라'는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또한 노자도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했는데 '모든 인위성을 제고한 물처럼 자연스러운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도 도시의 번잡함과 도시를 지배하는 인간의 인위성에 물려서 자연에로 삶의 현장을 옮기는 것을 '귀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대자연과 우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생각입니다.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부름 받은 선민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민에게 올바른 구호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출자연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시는데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던 곳으로부터 요단강 물이 끊겼습니다. 그것도 봄철에 물이 범람할 때에 물이 끊겨서 벽처럼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체를 띄고 내려와 계시는 법궤가 있는 곳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은 ‘자연법칙이 멈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연법칙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연법칙이 멈추고, 자연법칙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민들이 받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복지를 복지되게 하는 관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자연법칙에서 끊어져야 하고, 자연법칙의 매임으로부터 풀려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이 다 끊겨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데 자연이 멈춥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자연의 속성이 멈춥니다. 풍랑 속 배 안에서 깊은 잠에 빠지신 것도 역시 자연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연법칙을 초월하시고 지배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자체이십니다. 자연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시는 입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자연법칙이 예수님을 제한하지 못하고 자연에 묶이거나 매이시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도 그 순간에 자연법칙이 끊어집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허탕 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히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이라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는 자연법칙이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연법칙을 끝나게 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민들이 출애굽부터 광야기간 동안에 자연의 속성과 자연의 법칙을 따라 산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연의 속성이 끊어져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지나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자연의 속성이 끊어졌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내려오는데 자연의 속성이 끊어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해어지지 않았는데 자연의 속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연의 속성과 법칙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

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하실 때에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육체라고 하는 자연의 일부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칙과 자연의 속성에 매인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서 있는 곳에서 요단강 물은 끊어지는데 '우리는 자연의 생산자 위치에 서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궤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궤도로부터 벗어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선민으로 산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선민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자연에 매이지 않고 자연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소나 노자가 말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라든지, 대자연과 우주의 일부라든지, 자연에서 왔으니 자연으로 돌아가라든지, 자연을 보호한다든지, 자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은 선민이 아닌 저주받고 타락한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민이 자연을 파괴하고 망가뜨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롬8:19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하십니다.

타락하기 전의 아담은 자연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고 이것이 바로 생산자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생산자 위치에 선다.'는 것은 '자연에 대해 갖고 계신 생산자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산다.'는 의미로 원래 자연에 속하는 자들이 아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한 뒤로 나타난 일이 자연에 철저하게 예속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자연법칙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먼저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삶의 터전이 갖고 있는 자연의 속성과 법칙에 마음이 각인되어 있고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신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더 나아가서 자연과는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은 것은, 인간사회가 자연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인간사회의 속성과 인간사회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속성과 자연의 법칙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세상이 만든 속성과 법칙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모든 자연법칙이 무시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민을 이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자연법칙에 묶여있고 인간사회 법칙에 묶여있음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들이 실현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자연의 속성과 법칙과, 인간사회의 속성과 법칙과, 인간사회의 풍습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해야 한

다는 마음,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좋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예로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물 앞에서 '이대로 걸어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든지, 물은 샘에서만 나온다든지…'라는 물의 속성이 각인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반석에서도 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육지에 대해서도 '이 단단한 땅에 집을 짓고 살면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연의 속성들이 알게 모르게 각인되어져서 묶인 상태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곡식이 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자연법칙을 깨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법궤 앞에서 요단강물이 멈추는 자연법칙을 깨버리신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의 소산을 관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자연의 속성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린 대로 내 마음이 물을 체감하고 땅을 체감하고 자연을 체감하고 인간세상을 체감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물은 빠져 죽을 대상도 아니고 떠야 될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규정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뿐이지 필요하시다면 한강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만나시기 위해 배도 없고 택시도 없고 기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어서 물 위를 걸어가셨지만, 우리가 한강을 건너기 위해 물 위를 걸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타고 가면 되고 택시타면 되고 자전거타면 되잖아요. 필요 없으니 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물에 대해서 죽을 때에, 물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자연 속성과는 관계없이, 마치 TV생산자가 채널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실 때에, 우리가 자연과 인간사회의 법칙과 풍습과 가치관과 신념체계에 매여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 자체를 깊이 파고들면 인간세상의 속성과 법칙과 자연의 속성과 법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고, 그렇게 생산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바다를 볼 때에 바다에 대해서 죽고, 산을 볼 때에 산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산이다. 아름다운 단풍이다. 눈이 아름답게 내린다. 등의 모든 것에서 죽을 때에 그 순간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산과 바다와 들과 모든 자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갖고 계신 생각이 필요하시다면 자연 법칙이 멈춰지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자연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마음이면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굳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시키신 이유는 선민은 자연법칙이나 인간사회의 법칙을 따라 사는 자들도 아니고, 바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했던 법궤가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자연법칙에 대해서까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마음이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법궤 안의 십계명도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시거나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 자연으로부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복지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가 이제 삶에서 나의 호불호가 가닿는 대상들의 경계를 넘어서 자연과 이 사회 전체의 속성과 법칙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